

■ 2023년도 국제예술교류사업(통합심의) 문학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국제예술교류사업(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문학분야
- 회의일시 : 2022년 12월 5일(월) 14:00~17: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세미나실1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수이, 김일영, 김정미, 박찬순

이 사업은 국내 및 해외에서 개최하는 민간 차원의 국제교류활동을 위한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과 예술가의 해외창작 레지던스 참여를 위한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의 2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술 관련 민간단체와 예술가들이 외국의 작가독자연구자들과 긴밀히 교류하며 다양한 국제적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문학과 문인의 활동반경을 넓혀 궁극적으로는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일조하고자 하는 지향성도 이 사업의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먼저, 제시받은 자료를 각자 사전에 면밀히 전수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정해진 심의일에 만나 장시간의 토론과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지원자들 모두 자격을 갖추었고 계획서의 내용도 우수한 경우가 많았으나,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 고심 끝에 소수에게만 지원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미처 선정되지 못한 단체와 예술가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국제교류사업의 의의는 예술가의 성장과 좋은 예술작품의 창작을 촉발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자가 자신이 교류하려는 국가의 특수성 및 그 나라 문학과 한국문학의 관계를 깊이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가 아닌 ‘그 나라’ 와 교류해야 할 필연성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심의위원들은 지원자들이 세계무대에서 개방성과 확장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좁게는 해당 단체와 작가 개인, 넓게는 한국문학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목표와 실행계획을 얼마나 독창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는가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작성된 내용에 드러난 진정성과 열정, 작가적 역량과 성실성,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 등도 심의과정에서 두루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참고로,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의 심의 기준 및 가중치는 신청자의 역량 30%, 프로젝트의 예술성(독창성) 40%, 사업계획의 충실성·실현가능성 및 파급효과 30%이며,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의 심의 기준 및 가중치는 신청자의 역량 40%,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우수성 및 기대효과 40%,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 및 파급효과 20%입니다.

심의 결과, 위원들은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분야에서는 외국문학과와의 교류 계획 6건과 함께, 한국의 비극적인 근대사 속에서 한국문학의 일부임에도 소외되어온 해외동포 문학의 활동 계획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먼 타국에서 한국문학과 예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해 온 동포 예술가들에게 고국이 마땅히 해야 할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분야에서는 세부 지역(지정형 4곳, 비지정형 1곳) 별로 1

명씩 불과 총 5명의 작가들에게만 해외 체류 기회를 줄 수 있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까닭에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더 넓은 세계와 새로운 예술 공간을 체험할 좋은 기회가 보다 많은 작가들에게 열리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한국문학이 한류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볼 때도, 이 사업은 규모와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며 국제교류가 재개되고 있는 지금, 이 사업을 통해 한국의 예술가들이 세계 곳곳으로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향후 지원자들을 위해서는 계획서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쓸수록 선정에 유리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국문학에 아직 덜 알려진 영토들을 탐사하는 참신한 계획서가 많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심의위원 일동

■ 2023년도 국제예술교류사업(통합심의) 시각예술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국제예술교류사업(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시각예술분야
- 회의일시 : 2022년 12월 13일(화) 10:00~18: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세미나실1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광희, 박은선, 변종필, 송지선, 오세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단절되었던 국외 예술계와 소통을 재개하는 과정인 만큼 국제 교류 사업의 선정은 대단히 고심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금번 2023년도 문예진흥기금 국제예술교류 사업 정시공모 시각예술분야 심의에서는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사업을 통한 '국제 교류 확장'을 통한 예술 동시대성 획득', 둘째는 예술가 해외레지던스지원사업을 통한 '창작 역량 강화 및 교류'에 중점을 두고 심의에 참여했습니다.

2022년 12월에 사전 전수 검토 과정을 통해 지원신청서를 미리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대면 회의에서 ①신청 단체 및 예술가 개인의 역량, ②기획 내용의 독창성 및 구체성 ③ 예산의 현실성 ④작품 및 프로젝트의 의미 확장에 대한 가능성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아 지원서를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으로 진행했습니다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예술가해외레지던스 사업의 취지는 국내 작가들에게 폭넓은 경험을 제공하고 교류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동시대적 감각을 기르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해외 레지던스에서는 낮은 환경에서 제한된 자원으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현실적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심사위원들은 작가의 역량과 계획의 현실성 및 구체성을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비지정 레지던스의 경우 레지던스의 수준도 폭넓게 검토하였습니다. 레지던스는 특히 그 국가와 장소의 개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장소의 특성과 맞는 지원자를 우선으로 배점하였습니다. 또한 신진 작가들에게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배점하였습니다. 형식적으로 비슷한 작업들이 많아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심도 있는 고민을 한 작품들도 많이 있어 고무적이었습니다.

지원자들 모두 역량이 뛰어나며 독창적 작품 세계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의 예술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레지던스 특성에 맞는 작가를 선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또한 기획의 구체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항공료 및 물품 구입비에 대하여 예산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올해 역량이 출중한 지원자들이 많았으나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더 많은 작가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향후 더 많은 작가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나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활발하고 의미 있는 창작 활동을 기대합니다.

<한국예술국제교류사업>

한국예술국제교류사업의 목적은 민간 차원의 국제문화예술교류활동을 증진하는 것이며 또한 동시대 시각예술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데에 있습니다. 국제적 예술의 담론을 나누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탄탄한 역량이 필수적이며 동시대의 예술 담론을 담지하고 있는 기획에 가중치를 두었습니다. 1차 전수 검토를 거쳐 2차 대면 회의에서 기획자의 역량, 현실성, 시의성, 확장성, 독창성을 모두 고려하였습니다. 예산 규모에 비하여 역량이 훌륭한 기획이 많이 접수되어 심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선정에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기획자의 역량 및 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시각예술의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기획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였습니다. 반면, 독창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된 프로젝트와 파급력이 적거나 교류성격 없이 작품 제작에만 방점을 두거나 개인 작업의 확장을 위한 사업이라고 판단된 지원자는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배점을 받았습니다.

올해 우수한 신청서들이 많이 접수되었으나 예산 규모가 작아 심사위원들의 고심이 많았습니다. 고심이 많았던 만큼 구체적이며, 새로운 기획이 돋보이는 지원자에 가중치를 두어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에 아쉽게 선정되지 못했지만, 가능성이 충분한 지원자들이 많은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고민과 활발하고 의미 있는 창작 활동을 기대합니다.

심의회원 일동

■ 2023년도 국제예술교류사업(통합심의) 연극·뮤지컬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국제예술교류사업(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연극·뮤지컬분야
- 회의일시 : 2022년 12월 7일(수) 14: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세미나실1
- 심의위원(가나다순) : 안주은, 이재원, 진영섭

해당사업의 지원취지

2023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정시공모 국제예술교류지원(연극·뮤지컬 분야)에서는 ‘예술가 해외레지던스지원’,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총 2가지 사업을 심의하였다.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은 예술가의 해외창작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 지원을 통해 우리 예술가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며, 총 18개 사업에서 1억5천1백만원을 신청하였다.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은 2개의 지정형 사업을 운영하며, ‘이탈리아 씨어터 노 씨어터’와 ‘덴마크오딘씨어터’ 사업에 각 6인씩 지원신청하였다.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사업’은 ‘국내 및 해외에서 개최되는 민간 차원의 국제문화예술 교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예술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며, 46개 사업이 1,888백만원을 신청하였다.

심의기준/가중치 및 심의방법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사업은 참가단체의 역량(40%),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우수성 및 기대효과(40%),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20%), 세 가지 항목을 평가하였으며,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사업은 신청자(단체)의 역량(30%), 프로젝트의 예술성(독창성)(40%), 사업계획의 충실성·실현가능성 및 파급효과(30%) 세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심의하였다. 항목별 가중치에 따라 탁월-미흡의 5단계 채점을 거쳤으며 심의위원의 평균 점수 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였다.

3인의 심의위원은 지원신청서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뒤 각각의 심의기준에 맞추어 가채점을 진행하였다. 심의장에서는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사업에 대한 의논을 진행하였다.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원신청서를 참고하여, 사업의 우수성, 역량, 기대효과 등을 의논하였으며, 최종 채점 결과 순으로 분야 내 예산배정을 마쳤다.

심의위원회에서 합의된 중점 고려사항(사업의 특성, 예술계 주요 이슈, 시장현황 등)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사업의 경우, 역량있는 예술인이 경험을 쌓아 다음 스텝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하는 관점에서 주로 검토하였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특징과 예술인의 작업 이력에 연결고리가 있는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예술계에 좋은 리서치 결과가 환류될 것으로 기대되는 제안서도 눈여겨 보았다.

‘한국예술국제교류’ 지원사업의 경우, 코로나로 중단되었으나 내실있는 교류로 판단되는 사업, 레퍼토리화된 작품의 해외초청 형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식의 교류, 그간 상대적으로 교류가 적었던 권역과 장르의 사업을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면밀히 살펴보았다. 초청

공연이라 할지라도 상호 동등한 입장의 국제교류라고 판단될 만큼 우수한 초청조건을 제시한 단체, 초청 국가의 관객을 개발하며 한국 공연예술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예산배분 등 심의결과 요약(선정요인, 선정그룹의 공통적인 강점 등)

사전 토의 및 채점 결과,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에서는 '이탈리아 씨어터 노 씨어터 레지던스'에 1인, 360만원, '덴마크 오딘씨어터'에 1인, 26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이 외 프로그램비용은 예술위원회에서 협력기관으로 별도로 지원한다. 비지정형 레지던스로는 총 4건에 2천3백8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에서는 총 6개 단체에 2억5백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예산배분의 경우, 심의위원이 사전에 검토한 적정예산 금액의 평균값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지원신청서를 다시 살펴보았다.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여부, 사례비 편성의 타당성, 실행예산의 적정성 등을 따져 각 예산지원금을 일부 조정하고 만장일치로 확정하였다.

소회 및 당부사항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은 지원신청 대비 10%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는 높은 경쟁률의 사업이다. 작품 우수성에 이견이 없음에도 교류조건이 한국 측에 치중되어있어 예산편성 자립도가 낮은 단순 초청공연이나 예술현장이나 관객을 향한 교류성과 확산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경우 상대적인 우선 순위로 고려되기 어려웠다.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자 하는 본 지원사업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신청자의 국제교류 목적이 합리적인 예산안과 함께 보다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심의위원 일동

■ 2023년도 국제예술교류사업(통합심의) 무용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국제예술교류사업(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무용분야
- 회의일시 : 2022년 12월 8일(목) 14:00~17: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세미나실1
- 심의위원(가나다순) : 백영태, 양길호, 윤혜정, 이양희, 이찬주

2023년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 무용 분야는 무용인들에게 해외 창작공연 무대를 제공하고 해외에서의 춤에 대한 새로운 예술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은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으로 나누어진다. 이번 2023년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 지원심의회는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54건과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7건, 총 61건의 신청사업에 대해 진행하였다.

전체적으로 이전에 공연한 작업들에 대한 프로젝트가 신청의 주류를 이루었고 몇몇 작품은 초연 이후 오랜 기간 무대에 오르며 다듬어지고 잘 알려진 작품들도 있었다. 다만 현대무용과 타 장르의 비율이 60:40로 신청사업이 현대무용에 편재되어 있었다.

먼저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은 신청자(단체)의 역량(30%), 프로젝트의 예술성(독창성)(40%), 사업계획의 충실성·실현가능성 및 파급효과(30%),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은 참가자(단체)의 역량(40%),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우수성 및 기대효과(40%),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 및 파급효과(20%)라는 사업별 심의기준을 고려하여 심의 개최 이전, 심의위원 각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모든 신청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진행하였다.

심의회의에서 합의된 중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무엇보다 신청단체들에 대한 신뢰도와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한 오랜 활동경력 등을 고려하는 한편 세부적인 사항들도 점검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두 번째,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지원과 장르별 안배 등을 고려하되 각 신청사업의 예산집행 계획 또한 세밀히 살펴보았다.

세 번째, 미래의 가능성과 작업의 진정성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네 번째, 순수예술/다원예술 사이의 경계에서 순수 무용 쪽으로 사업성격을 맞추었다.

지원심의회 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모든 심의 대상 사업에 대해 심의위원 각자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회의 당일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며 그 결과,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은 8건,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은 5건을 선정하였다.

심의결과는 단발성 협업보다는 국제교류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세부 분야가 고르게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번 공모에서는 기량면에서 우수한 신청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예산 안에서 많은 신청 사업을 선정할 수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심의위원 일동

■ 2023년도 국제예술교류사업(통합심의) 음악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국제예술교류사업(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음악분야
- 회의일시 : 2022년 12월 9일(금) 14:00~18: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세미나실1
- 심의위원(가나다순) : 문옥배, 박창민, 서승희, 임주섭, 한혜리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의 음악분야는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과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의 두 유형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유형은 모두 비지정형으로 신청하였으며, 심의기준은 지원서의 제시내용이 사업의 취지(교류)에 부합하는지, 프로젝트가 독창성이 있는지, 수행계획은 충실한지(사업추진이 준비되었는지), 예산집행계획(예산편성)은 적절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이 사업의 취지는 ‘교류’에 있으며, 교류는 ‘상호적’이어야 한다. ‘상호교류’의 취지에 충실하여 두 단체간 ‘교류조건’(역할분담, 비용분담)이 적절한(균형잡힌)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지도나 기량이 높은 단체라 하더라도 일방적인 교류조건은 평가가 높지 않았다. 예컨대 국내단체가 해외초청단체의 항공료, 숙박비, 숙식비, 교통비, 출연료 등 사실상의 모든 비용을 제공하고 해외단체는 역할분담이 거의 없는 기획, 국내단체가 해외초청을 받은 경우 항공료, 숙박비, 숙식비, 교통비, 출연료 등 일체의 비용을 국내단체가 부담하거나, 해외공연장 대관료, 장비임차료까지 부담하는 경우 평가가 낮았다.

기획의도에서 특별한 프로젝트이거나, 공연프로그램의 독창적인 기획은 높은 평가를 받았고, 수행방식 및 내용을 충실하게 제시하지 않은 단체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예산집행계획은 예술위원회에서 제시한 항목과 항목예산 한계액 내에서 적절히 편성한 단체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제교류’라는 사업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총 예산의 일부만 직접 교류비용에 반영되고, 나머지의 다수 예산은 그 행사 자체를 치르는 것에 투입된 경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유형은 모두 지정형으로 스웨덴국립전자음악스튜디오(EMS) 레지던스를 신청하였다. 심의기준은 EMS에서의 작업기간인 한 달간 지원자가 세운 프로젝트의 목표와 활동(작업)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인지, 프로젝트를 위한 사전준비는 적절한지, 프로젝트 후의 성과가 기대되는지, 예산집행계획(예산편성)은 적절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목표와 활동 내용이 한 달 동안 실현 가능한지를 세심하게 살폈고, 이번 프로젝트와 과거 지원자의 작업과의 연계성 그리고 레지던스 후의 작업연계성 등을 제시한 경우 높게 평가 하였다.

추후 본사업에 지원하려는 단체는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유형은 사업 취지인 ‘교류’와 ‘상호적’임을 이해하여 균형잡힌 교류조건(단체간 역할분담)과 이에 따른 적절한 예산편

성 등에 유의하고,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유형은 한달 동안의 실현가능한 작업목표와 작업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유의해야할 것이다.

심의회원 일동

■ 2023년도 국제예술교류사업(통합심의) 전통예술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국제예술교류사업(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전통예술분야
- 회의일시 : 2022년 12월 6일(화) 14:00~18: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세미나실1
- 심의위원(가나다순) : 박용화, 박은영, 서인화, 최용석, 한상일

본 사업은 첫째, 한국예술의 역량 강화와 국제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 차원의 국내외 초청, 국제협업, 온라인 국제교류,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는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둘째, 유럽 국제방송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전통음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유럽방송연맹 민속음악축제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유럽 내 한국 전통음악 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지정형 국제교류프로그램, <유럽방송연맹(EBU) 민속음악축제 참가>, 셋째, 예술가의 창작역량 강화와 한국예술의 국제교류 네트워크 기반 확대를 위해 해외 창작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를 지원하는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으로 구성됩니다.

코로나가 완화된 시기에 전개된 이번 공모사업에는 총 83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65건, <유럽방송연맹(EBU) 민속음악축제 참가> 16건,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2건입니다. 이 중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행정심의 결과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에서 3건이 결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에 심의위원들은 심의불가능한 3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80건에 대하여 사전 12일간 신청자 및 단체의 사업수행 역량, 사업계획과 내용의 구체성과 우수성(예술성), 교류 실현 가능성, 결과물의 파급성과 네트워킹의 기대효과, 사업 추진 방법의 합리성과 예산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다각적으로 제출자료를 검토하고 가차점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심의회의에서 위원들이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신청사업에 대해 토론하고 개별 점수를 내고, 이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순위를 정했습니다.

사업의 우수성을 비롯한 위에 언급한 기준을 우선으로 두고, 이외에도 교류 지속성, 초청기관의 공신력, 가·무·악 통합 등 장르, 전통과 창작, 지역과 세대 간의 균형과 배려를 고려사항으로 논의했습니다. 예산의 적절성을 볼 때는 사례비의 적정성, 사업의 상호성, 즉 교류 조건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신청서를 대부분 잘 작성하시어 사업계획과 내용의 우수성의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선정된 신청인 및 단체는 공통적으로 지원의 필요성과 계획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하였고 합리적인 예산 책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됩니다.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와 <유럽방송연맹(EBU) 민속음악축제 참가>는 신청건수가 많아 경쟁률이 매우 높았던 반면,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은 2건 밖에 없어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신청건수와 내용의 우수성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여 더 많은 예술

가(단체)를 선정하지 못했고, 선정된 개인과 단체에게도 신청액에 비해 낮은 지원액을 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최종 선정된 단체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여 한국전통예술의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사업 마무리와 평가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의위원들은 해외에 나갔을 때 전통이 가장 관심을 끈다는 점에서 전통예술이 국제교류의 얼굴이라고 보고, 전통예술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신청건이 많은 것을 매우 고무적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선정된 지원자와 단체께서도 본 심의가 한정된 예산 속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시어 이해와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심의위원 일동

■ 2023년도 국제예술교류사업(통합심의) 다원예술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국제예술교류사업(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다원예술분야
- 회의일시 : 2022년 12월 12일(월) 14: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세미나실1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형미, 박천남, 성상철, 오성화, 장지아

해당사업의 지원취지

2023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정시공모 국제예술교류지원(다원예술분야)에서는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총 2가지 사업을 심의하였다.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은 예술가의 해외창작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 지원을 통해 우리 예술가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며, 총 8개 사업에서 5천7백만원을 신청하였다.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사업’은 국내 및 해외에서 개최되는 민간 차원의 국제문화예술교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예술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며, 29개 사업이, 11억5천만원을 신청하였다.

심의기준/가중치 및 심의방법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사업은 참가단체의 역량(40%),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우수성 및 기대효과(40%),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20%), 세 가지 항목을 평가하였으며,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사업은 신청자(단체)의 역량(30%), 프로젝트의 예술성(독창성)(40%), 사업계획의 충실성·실현가능성 및 파급효과(30%) 세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심의하였다. 각각의 항목은 항목별 가중치에 따라, 탁월-미흡의 5단계 채점을 거쳤으며 심의위원의 평균 점수 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였다.

5인의 심의위원은 지원신청서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뒤 각각의 심의기준에 맞추어 가채점을 진행하였다. 심의장에서는 올해의 지원신청 경향 등에 대한 개괄적인 의견을 먼저 나눈 뒤,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사업에 대한 의논을 진행하였다. 심의위원의 전문성 및 지원신청서를 참고하여 사업의 우수성, 역량, 기대효과 등을 의논하였으며, 최종 채점 결과 순으로 다원예술분야 한도 내 예산배정을 마쳤다.

심의위원회에서 합의된 중점 고려사항(사업의 특성, 예술계 주요 이슈, 시장현황 등)

올 해 지원사업들은 대체로 국제문화예술교류활동의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잘 이해하고, 각 예술적 분야에 우수한 역량을 가진 사업이 많았다.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사업의 경우 취지에 적합한 개인 예술가들의 지원작이 많아, 가능한 많은 단체에게 역량 개발의 기회를 주고자 하였다.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의 경우, 배정 예산이 제한적인 관계로, 우수한 지원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고심의 시간이 필요하였다. 밀도 있는 교류계획과 후속성과 활용계획이 지원신청

서 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경우, 이전에 없던 리서치 작업이나 교류형태가 현실화되는 경우, 한국에 상대적으로 소개되지 않았던 플랫폼과 교류하여 예술가들에게 추가적인 확산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예산배분 등 심의결과 요약(선정요인, 선정그룹의 공통적인 강점 등)

사전 토의 후 최종 확정된 채점결과를 바탕으로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에서는 총 7개 사업에 3천만원,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에서는 총 6개 사업에 1억6천5백만원을 선정하였다.

예산배분의 경우, 심의위원이 사전에 검토한 적정예산 금액의 평균을 기본으로 하되, 상위 순위부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원신청서를 다시 살펴보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여부, 사례비 편성의 타당성, 실행예산의 적정성 등을 따져 각 예산지원금을 일부 조정하고 만장일치로 확정하였다.

소회 및 당부사항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은 ‘국제예술교류’의 취지와 기대성과를 중심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많은 토의가 있었다. 성취하고자 하는 예술적 성과와 가치를 고려하되, 국가예산이 투입되는만큼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계획된 지원신청서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문예진흥기금을 연속하여 지원신청하는 경우, 어떤 부분에서 지속성을 가져야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다면 심의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마다 사례비 산출 근거가 모호하여, 그 기준에 대한 가이드 제시가 필요하다.

심의위원 일동